

코로나19 2년! 우리들의 스포츠는 계속되어야 한다



나근주

(사)대한당구연맹 사무처장
스포츠경영학 전공
스포츠생태계, 미디어, 스포츠클럽에 관심
yamskj@kbfssports.or.kr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의 적절한 대응으로 전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꼽힐 정도로 빠르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스포츠대회들은 예정과 취소를 반복, 일상으로의 복귀가 멀어져 버린 분야가 되어버렸다.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에 가면 하나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클럽, BAR 등에 가면 마스크를 쓴 것이 무색하게 사람들이 북적이며 대화가 오가다가 대규모 감염¹⁾이 일어나 방역체계를 무너트리기도 했지만, 맹목적인 정도로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묵묵히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은 지속되는 고강도 방역 지침 상황으로 인해 개최 대회들이 사라지며 ‘선수’라는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본

1) KBS NEWS 2020.05.23, 기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대구 엄습..방역 비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53113&ref=A>



<그림 1> 전국 당구 대회에 참가한 이충복 선수(시흥시 체육회)가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치르고 있다.

글에서는 코로나19가 아마추어 대회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괴물’... ‘대회’라는 ‘심장’을 멎게 하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대유행 상태가 지속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 국가, 조직, 사람 간 활발한 교류 속에 급속도의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코로나19라는 ‘괴물’은 사람 간 접촉을 강제로 금지했고,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너무나 정교해 보여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과 같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을 파괴해 버렸다.

특히 스포츠는 그 정도가 심한 분야 중 하나이다. 수많은 선수가 한데 모여 평소 같고닥은 기량을 맘껏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관중들은 시합장을 방문해 이러한 선수들의 모습에 환호하는 것이 스포츠의 기본이지만, ‘만남’ 그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스포츠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스포츠에서 ‘대회’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대회가 개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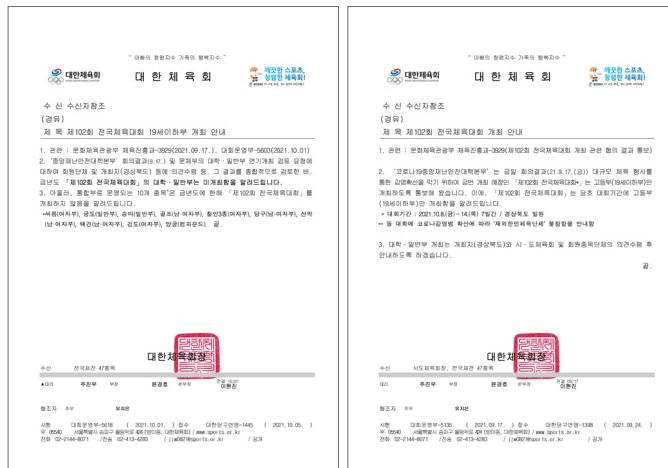


<그림 2> 근대5종 전용태, 정진화 선수가 포옹하고 있다.
출처: 대한근대5종경기연맹

어야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모든 스포츠인들이 뗄 수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멈추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대회에서의 좋은 모습과 결과를 위해 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약 없이 대회 개최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경기력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올림픽 개최 연기였다. ‘2020도쿄올림픽’은 2020년 7월 24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2021년 7월로 연기되어 개최되었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관중 수용을 추진했지만 결국 125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식·폐막식을 포함해 전 경기 무관중²⁾으로 치러졌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스포츠대회 현황은 더욱 더 심각했다. 우리나라 스포츠인들의 대제전인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주도하에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의 단체장들이 모여 각각 1년씩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21년에 경북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여름 이후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반부는 개최를 취소하고 고등부만 개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스포츠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거쳐 6.25 전쟁의 아픔을 겪는 상황에서 전쟁 중임에도 ‘전국 각 시·도의 친목과 화합, 스포츠선수들의 육성과 실력향상, 국민 체육 증진’을 목적으로 쉬지 않고 개최되었던 국내 스포츠의 정신적 지주이며,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사업을 통한 체육 보급과 엘리트 체육 발전을 통한 스포츠강국으로의 기반을 다지게 해준 스포츠인들에게는 가장 상징적인 대회인데, 이러한 전국체전이 90% 축소된 형태로 개최되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

2) 조선일보 2021.7.8. 기사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결정... 15년 올림픽 사상 처음”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1/07/08/J5PEM3A64BGL5AZCP3RKMHSDMY/>

또한 80여개에 달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2019년 국내에서는 국제대회가 30회, 국내대회는 924회를 개최하는 등 총 954회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에는 국제대회 4회, 국내대회는 342회 등 총 346회가 개최되었다. 2019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약 63.7%의 사업이 감소하였다.

구분		2019년	2020년	감(▽)
국제대회	개최단체 수	28개	4개	▽24개(▽85.7%)
	대회 수	30회	4회	▽26회(▽86.7%)
국내대회	개최단체 수	65개	56개	▽9개(▽13.8%)
	대회 수	924회	342회	▽582회(▽63%)
계	대회 개최 수	954회	346회	▽608(▽63.7%)

매번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종목단체는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하고 경험치를 제공하며 올림픽을 준비한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종목 중에서는 단 한 차례도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일까? 국제대회 미개최가 절대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도쿄올림픽에서 전체 메달 순위 16위를 기록하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12위) 이후 20년 만에 전체 메달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이번 도쿄올림픽의 결과만 두고 보았을 때 국제대회의 미개최 상황들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No.	단체	2019년	2020년	No.	단체	2019년	2020년
1	핸드볼	1		15	당구	2	
2	축구	1		16	스키	1	
3	유도	1		17	산악	1	
4	루지	1		18	롤러	1	
5	스키	1	1	19	펜싱	1	
6	하키	1		20	사격	1	
7	조정	1		21	육상	1	
8	에어로빅	1	1	22	배구	1	
9	테니스	1		23	철인3종	1	
10	패러글라이딩	1		24	탁구	1	
11	바둑	1	1	25	태권도	1	
12	럭비	1		26	정구	1	
13	자전거	2		27	스쿼시	1	
14	배드민턴	2		28	빙상		1

국내대회의 경우 각 종목단체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으로 약 1천 개의 대회를 계획했었지만, 이중 약 600개의 대회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연기 또는 취소되었고, 개최한 대회들도 무관중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확진자 추이 및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될 때마다 종목별 사무처장들의 단체 카톡방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종목별 대회 개최 가능 여부와 방역에 관한 기준점 찾기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기준은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스포츠 대회 개최는 그 기준을 찾기 어려웠고 더욱이 선뜻 위험 부담을 안고 대회를 개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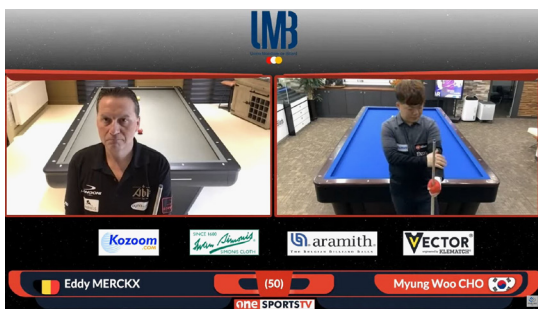
No.	단체	2019년	2020년	No.	단체	2019년	2020년
1	검도	33	17	34	아이스하키	20	8
2	게이트볼	7		35	야구소프트볼	25	19
3	골프	41	17	36	양궁	17	10
4	국학기공	6	3	37	에어로빅	7	5
5	궁도	8	3	38	역도	7	6
6	그라운드골프	3		39	요트	7	
7	근대5종	5	3	40	우슈	5	1
8	농구	29	6	41	유도	17	2
9	당구	18	3	42	육상	29	17
10	댄스스포츠	22		43	자전거	14	4
11	력비	7	3	44	정구	20	
12	레슬링	8	4	45	조정	12	3
13	롤러	8	2	46	족구	11	1
14	루지	1	1	47	철인3종	22	1
15	바둑	2	3	48	체조	19	1
16	바이애슬론	5	2	49	축구	62	35
17	배구	30	13	50	카누	8	4
18	배드민턴	22	9	51	컬링	4	1
19	보디빌딩	5	2	52	탁구	27	1
20	복싱	9	3	53	태권도	33	6
21	볼링	12	3	54	택견	5	1
22	봅슬레이스켈레톤	3	2	55	테니스	37	26
23	빙상	24	5	56	파크골프	4	
24	사격	22	7	57	페러글라이딩	6	4
25	산악	11	4	58	펜싱	18	10
26	세팍타크로	11	4	59	하키	9	6
27	수상스키	5	4	60	합기도	6	6
28	수영	13	3	61	핸드볼	11	5
29	수중.핀수영	14	4	62	줄넘기	5	1
30	스쿼시	14	7	63	카라테	3	
31	스키	10	6	64	카바디	5	
32	승마	12	2	65	킥복싱	5	
33	씨름	20	13				

하지만 각 단체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대회 개최 정보를 공유하며 각 종목 특성에 맞는 방역지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부터 상반기에는 64회가 개최된 반면, 하반기에는 282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속 스포츠대회 개최 기준을 세워내기 시작했다.

2020년 종목 대회 개최 수											
상반기 : 64회						하반기 : 282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	7	3	4	9	23	37	45	36	56	73	35

이상의 결과만 보더라도 코로나19가 우리 스포츠계에 큰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비대면 스포츠대회가 급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대면 중심 스포츠대회 방식을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실제 당구 대회 경우 세계당구연맹(UMB) 주최로 비대면 방식으로 최대 8,500km까지 떨어져 있는 국가 간 선수들끼리 'UMB 버추얼 원캐롬 챌린지'라는 국제 대회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당구연맹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2020 전국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원격당구대회'와 '온라인 풀투어'를 개최하며 대회에 목마른 선수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UMB 버추얼 원캐롬 챌린지 대회 사진
출처:파이버앤식스 인터내셔널 Youtube



대한당구연맹 온라인 풀투어 대회 사진
출처: 대한당구연맹 Youtube



대한당구연맹 전국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원격당구대회
출처: 대한당구연맹 Youtube



대한당구연맹 원격대회 튜토리얼 영상
출처:대한당구연맹 Youtube



출처: shutterstock

전통적으로 대면만이 유일한 규칙으로 알고 있던 스포츠단체들은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여 개최하였고, 어찌 보면 제한적으로 소수의 관중만 참관하여 치렀던 대회 문화가 온택트(On tact)³⁾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스포츠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더욱이 많은 종목단체가 오프라인 대회 개최 경험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의 핵심인 온택트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게된 경험들은 향후 오프라인 대회의 개최에 있어 방송, 홍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커다란 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스포츠는 계속되어야 한다!

체육학대사전에서는 스포츠의 어원을 ‘carry away’ 즉 ‘일상에 지쳤을 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기술⁴⁾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衣食住)와 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전 스포츠는 ‘대한민국’을 외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합

3)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 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다.(출처: NAVER 지식백과)

4) [네이버 지식백과] 스포츠 [Sports] (체육학대사전, 2000, 2, 25., 이태신)

창단이었으며, 각본이 없기에 예측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였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있어 사랑하는 존재였으며, 사람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삶의 촉매제였다.

지난 코로나19를 겪은 2년... 우리 스포츠계는 참담하리만큼 많은 부분이 망가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대한체육회와 80여개의 회원종목단체, 개최 지역 지방자치단체, 후원기업 등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류하며 그 어떠한 분야보다 철저히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과도하리만큼 그 매뉴얼을 따르며 스포츠대회 현장에서만큼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스포츠는 맞대고 겨루고 경쟁하는데 방점이 있다.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스포츠대회는 하나의 방식일 뿐 스포츠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우리는 또다시 떨어지고 멈추기만 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역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흘러간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있을 때도, 일제 강점기에서도 6.25 전쟁이 발발할 때에도 스포츠는 계속되어 왔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포츠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승부를 겨루며 어려움을 이겨내왔다. 이러한 스포츠의 역사는 일상 속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삶에 항상 큰 힘을 주며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필자는 이야기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삶에 희망의 힘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스포츠는 계속되어야 한다’고...